

2007 지방의 국제화 포럼

육동일 원장은 지난 9월 6일 오후2시 지방 자치단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들의 국제화 관련 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2007 지방의 국제화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및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과 주한 외국인 등 250여명이 참가했으며, 참석자들은 국제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기조강연, 세미나 등을 통해 다문화사대에 맞는 '내향적 국제화'를 주제로 지자체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국제화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상생협력방안 세미나

육동일 원장은 9월 14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주최한 동북아지역 지방정부간 상생협력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육동일 원장은 동북아지역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전 대도시권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여러 차원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동북아시아대를 수용하고 통제할 만큼의 기반조성은 취약한 상태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기능을 수행하는 권역으

로 발전하고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계도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동북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전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제2단계 균형개발정책 설명회

육동일 원장은 대전시와 충북, 충남도가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대덕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컨퍼런스룸에서 지역혁신협의회위원, 기업인, 공무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여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의 토론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기반강화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충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업중사자를 위한 교육 의료 등 정주환경 개선을 내용을 설명하였다.

“친환경 동서대로 건설”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육동일 원장은 9월 18일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서남부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

하는 동서대로 건설과 관련하여 동서대로 사업설명, 선정노선의 타당성, 친환경적인 건설방안에 대해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이다.